

조선중엽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 이황 묘 출토 첩리와 창의류를 중심으로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The Study of The Excavated Clothes of The Mid-Chosun Dynasty**  
— Centering Around Chopri and Changeuis From Lee Hwang's Tomb —

**Na Young H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996. 3. 6 접수)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 man's clothes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hel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The author adopted the Assy CAD, an apparel CAD system developed by Assysit Company of Germany, in measuring clothes which is intended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the previous measurement of clothes, as well as in the making of patterns. The author used tracing paper to make copies of the curved parts, put them into the computer by digitiger, and made the patterns for more accurate restoration. Furthermore, the author compared Lee Hwang's with the contents of the related literature and excavated apparel from other tombs.

As a result, Chopri among Lee Hwang's clothes, retained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d-Chosun men's fashion in its ratio of bodice to skirt, form of sleeves, and size of breast-ties for fastening which appeared in the 17th century. Daechangeui and Jungchimak also were distinctive for Changot and the width of sleeves since the 17th century and were in wide use not only as the daily clothes but also as the shroud. These changes were brought about from the two wars which emphasized prestige and beauty of the clothes rather than their functions. As a result, Changeuis were used more widely, while Chopri which was used as the underwear of officials' uniform, was in decline.

I. 서 론

본 연구는 현 위치할 호텔 위치의 이황의 묘에서 출

토된 복식 유물(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중 단령  
을 제외한 남자 복식 즉, 便服袍를 17세기말에서 18세  
기에 해당하는 다른 출토 복식 유물과 비교하며 고찰하  
고자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소장의 출토복식은 李槐(1651~1724)의 묘에서 출토된 것 외에 마석과 여주에서 출토된 것이 있지만 완산 최씨(이황의 부인)의 저고리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었기에 앞으로의 출토복식의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함도 있을 뿐더러 타 박물관 소장의 동 시대 복식과 비교함으로써 조선 중기의 남자 편복 중 첩리와 창의류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종래의 출토 복식의 실측과 복원에 있어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기본 치수는 직접 실측하고, 패턴 작성을 위해서 독일의 아시스트(Assysist)사에서 개발한 Apparel CAD System인 ASSY CAD를 사용하였다.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깃, 배래, 도련 등 곡선이 심한 부위는 실측과 함께 트레이싱紙로 직접 본을 떠서, 아시스트사의 디지털타이저(Digitiger)로 입력하여 패턴에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곡선을 그대로 복원해내고자 하였다. 유물의 실측도는 뒷면은 뒷중심선을 축으로 반단 제시하였다. 첩리의 앞면은 소매와 치마부분은 생략한 채 길의 실측도만 제시하였다. 각 실측도에는 뒤길과 소매, 치마 부분은 의복의 모습대로 이어 그리고 유물번호-1을, 오른쪽 앞길은 유물번호-2, 걸썩이 달린 왼쪽 앞길은 유물번호-3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출토복의 특성상 유물을 자주 꺼내볼 수 없는 현실에서 정확한 실제 크기의 원형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박물관에서 이 원형으로 복원품을 제작 전시한다면 유물의 보존에는 물론이고 복식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묘에서 출토된 여자 치마, 저고리를 비롯한 기타 복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의 연구를 계속하고자 하며, 이러한 작업이 누적된다면 출토 연대가 불확실한 복식의 연대 측정은 물론, 추후 복식유물의 복원 제작을 통해 당시 복식의 착용 상태를 미학적으로 관찰하는데에도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다양한 전통 복식의 패턴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CAD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출토복이 부장품으로 평상시의 복식도 있지만 수의용으로 별도로 제작하였을 경우, 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음을 그 제한점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문헌 고찰에서는 조선 중엽 사대부들의 상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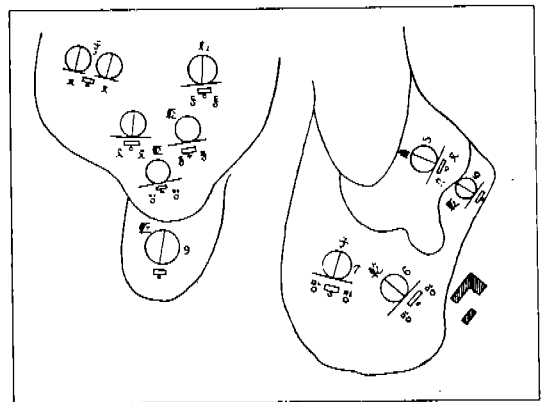
염습의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대신 왕의 염습의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신분은 다르나 왕도 편복은 사대부에 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을 밝힌다.

## II. 출토 복식의 취득 경위와 내용

### 1. 출토 복식의 취득 경위

본 유물은 워커히호텔 건설 공사시 현재 광진구 광장동 워커히 호텔의 부지(과거 성동구 장의동 소재 장의 국민학교 서측)의 전주 이씨의 묘에서 출토된 것을 제공받은 것이다. 하지만 출토 현장이 마무리된 후 복식이 전달되어 염습 상태를 관찰할 기회가 없었고, 제공된 의복 일부가 불에 타다 남은 흔적으로 보아 기타 다른 출토 복식이 더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문중의 제보가 잘못되어 묘주 무덤 위치를 재확인하여 쪽보의 묘 위치와 비교해 정확한 묘주의 이름과 내용을 알아내었다(그림 1)<sup>1)</sup>.

본 유품의 주인공인 承憲大夫 西川公 李槐은 효종 2년(1651)에서 경종 4년(1724)까지 74세를 사신 분이고, 그 부인인 賢夫人 완산(全州) 최씨는 효종 원년



[그림 1] 이황의 묘 위치도

1. 昌原君 贈承憲大夫 配 韓氏 賢婦人
2. 淸平君 配 韓氏
3. 西川君 槐 配 崔氏 賢婦人
4. 廷燿 配 鄭氏
5. 在 史曹參判 贈 史曹判書 配 尹氏貞夫人
6. 惟秀 配 金氏
7. 述初
8. 道本 配 徐氏
9. 慎九 配 朴氏

(1650)에서 영조 8년(1732)까지 83세를 사신 분으로 본 유품은 조선 중엽인 숙종, 경종시대의 염습의로 추정된다. 이황의 묘에서 출토된 남자 의복은 團領 1점과 胸背 1쌍, 帖裏 2벌, 中致奠과 大驚衣 등 驚衣류 5벌이며, 단령과 여자 저고리 4점, 치마 등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남자 편복인 첩리와 창의류만을 다루었다.

2. 출토 복식의 내용

1) 帖裏 2점

소색의 첩리(유물번호 184)와 청현색의 첩리(유물번호 173)가 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모두 七寶雲紋緞(그림 2) 홉겹으로 만든 것이며, 보존 상태도 좋다. 다른 첩리들의 경우 대부분 싹솔로 처리한 것에 비해 섞이나 배래 등도 모두 시점의 마무리 처리를 하지 않아 부장 풀일 가능성이 높다. 안쪽에서 보면 시점의 마무리 처리를 하지 않아 울이 약간 풀어진 채 보인다. 바느질은 홉질로 하였으며 등솔의 경우 식서를 마주 대고 0.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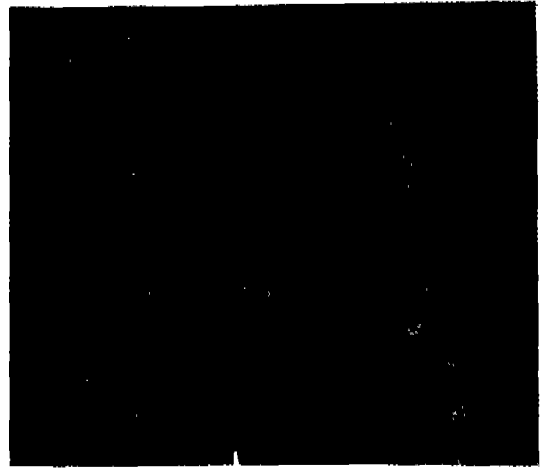
[그림 2] 칠보운문단(유물번호 173)

한번 접어 바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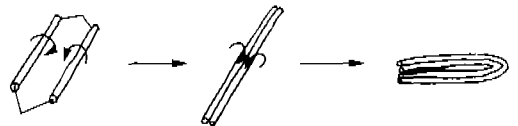
또한 수구와 앞 뒤 도련에는 식서로 안단을 각기 대었는데 이것이 도련이 늘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였다고 본다. 등과 겨드랑이 부분에는 바대를 대었다.

치마 부분은 앞뒤 길 도련선에 각기 달려 있어 양 옆 선은 트여 있으며(그림 3), 허리선에서 치마단까지 끈게 주름이 잡혀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진다.

고름은 걸 고름과 안 고름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그림 3] 첩리의 치마 주름과 옆트임 ; 약간 겹치게 달았다.



[그림 4] 단추고리 만드는 법

겉선의 아래에 매듭 단추가 달려 있어 안섿 끝에서 26cm 들어간 곳의 단추 고리에 걸게 되어 있다(그림 4). 매듭 단추 고리는 직사각의 천을 좌우에서 돌돌 말아 긴 끈의 상태로 만든 후 반을 접어 단추 크기만큼을 남기고 감칠질하여 만든 것으로 다른 첩리에서도 종종 보인다. 겨드랑이 부분에는 허리띠를 걸 수 있도록 작은 끈고리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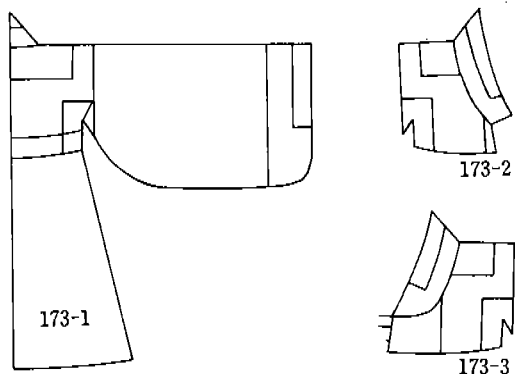
2) 대창의(유물번호 5601-321)

안팎이 모두 소색의 명주로 되어 있다. 안감은 걸감보다 울이 굵다. 두리 소매에 등솔의 허리 부분부터 트임이 있으나, 좌우의 옆 솔기에는 전혀 트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겉선이 넓어 한 폭의 옷감으로는 섿의 나비를 내기에 부족하므로 겉선이 달린 선에서 34.2cm의 나아가 천을 이었다.

3) 중치막

중치막은 4벌이며 안팎이 모두 소색 명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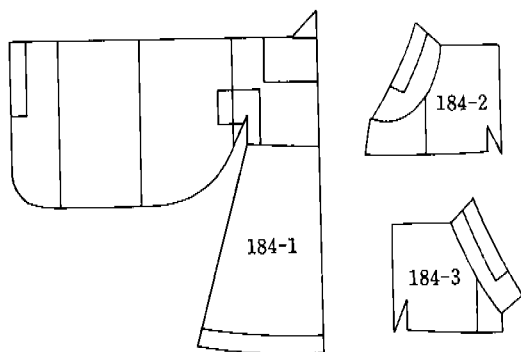
중치막 I(유물번호 3602-302)과 II(유물번호 3602-309)는 모두 다듬은 소색의 명주로 만들었다. 중치막



[그림 5] 첩리 I (유물번호 173) 실측도



[그림 7] 첩리 II (유물번호 184) 사진



[그림 6] 첩리 I (유물번호 184)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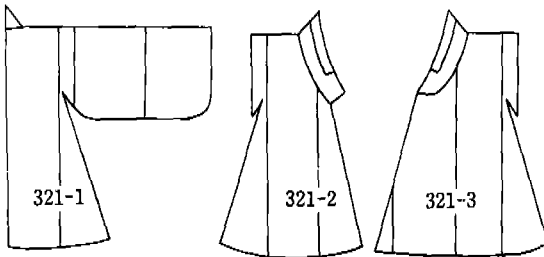
III(유물번호 5602-312) 역시 소색의 명주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부분적으로 푸른 물이 들어 있다. 의복의 크기로 보아서 중치막 III만이 유난히 품이 작아 착용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중 누비 중치막 IV(유물번호 3602-323)의 걸감은 자미사 비슷한 옷감으로 평직 바탕에 능직으로 당초풍의 등그스름한 꽃무늬가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으며(그림 9), 안은 명주로 되

<표 1> 첩리 치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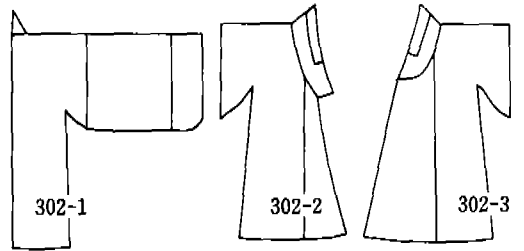
항목	종류		항목	종류	
	첩리 I 유물번호 173	첩리 II 유물번호 184		첩리 I 유물번호 173	첩리 II 유물번호 184
총길이	127.1	123.2	옷감나비	65.5	31.8 / 1
상의길이 뒤 / 앞	44.6 / 45.7	43 / 44.2	걸설피나비 上 / 下	18.6 / 20.2	20.8 / 22.3
치마길이	80.5	80.2	걸설피길이 안 / 밖	22 / 13.6	24 / 13.5
치마단 나비	7	7.4	안설피나비 上 / 下	2.5 / 13.2	7. / 9.5
뒤폭 / 2	27	27	안설피길이 안 / 밖	13.2 / 10.6	39.5 / 41
앞폭(좌 / 우)	23 / 26	23 / 26	걸깃길이	39	41
도련안단나비	7.1	8	안깃길이	38.7	39
화장	112.6	118.5	총깃길이	94	98
고대	20.5	20	깃나비	12	13
소매나비	55.5	64.7	동정나비	6	6.4
진동	29.2	29.6	걸주름나비	1.8	2
수구	23.6	22	속주름나비	3.1	2.9
수구안단	7.7 / 29.1	7 / 32	치마폭	8.5	7.5

< 표 2 > 대창의 (유물번호 5601-321) 치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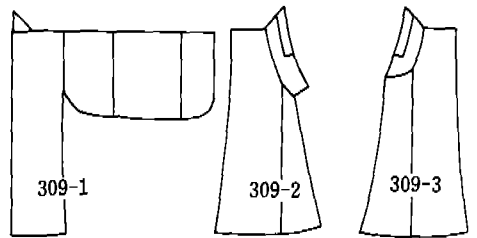
총길이 / 앞길이	124 / 126	겉선평이 上 / 下	21 / 45
뒷폭	62	겉선평길이 안 / 밖	102 / 91.3
앞길 나비 (좌 / 우)	26.7 / 29.5	안선평나비 上 / 下	7.5 / 24.8
뒤도련	136	안선평나비 안 / 밖	94.7 / 81.5
앞도련	113 / 92.8	겉깃길이	46.5
무아래나비	28.5	안깃길이	44
고대	20.5	총깃길이	109.5
화장	113.2	깃나비	14
소매나비	53.8	등정나비	5.4
진동	36.6	뒤트임길이	76
수구	24	옷감나비	40
겉 고름길이 / 나비	64 / 4.7	안 고름길이 / 나비	59.6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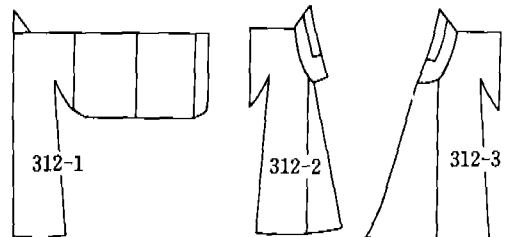
[그림 8] 대창의 (5601-321) 실측도



[그림 10] 중치막 I (유물번호 302)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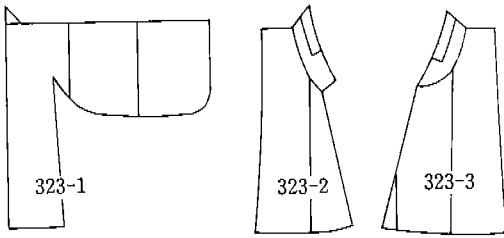
[그림 11] 중치막 II (유물번호 309) 실측도



[그림 12] 중치막 III (유물번호 312) 실측도



[그림 9] 중치막 IV 의 옷감 무늬



[그림 13] 중치막 IV(유물번호 323) 실측도

어 있다. 태우다만 자국이 약간 남아 있다. 1cm정도의 선단을 돌려 바느질하였다. 결선패는 다른 중치막과는 달리 약간(2cm) 어긋나게 달았다.

III. 문헌으로 본 염습의

출토 복식은 대령, 소렴 등 습렴시의 복식도 있지만

補空으로 관의 내부에 평상시의 복식을 채워 주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라고만은 할 수 없다. 喪禮 중 死者에 관한 것은 襲<sup>2)</sup>, 소렴<sup>3)</sup>, 대령<sup>4)</sup>인데, 본 묘에서 출토된 첩리와 창의류 보존 상태가 매우 깨끗한 것으로 보아 보공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염습과정에 사용되는 의복에 대해서는 「국조오례의」를 비롯 「喪禮備要」(1621), 「家禮輯覽」(1632), 「家禮診解」(1632), 「四禮便覽」(1844), 「四禮纂說」(1867) 등과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을 볼 수 있다.

당시 사대부가의 염습의에 대한 조선 중엽의 문헌자료 중 중치막이나 창의류에 관한 내용은 그 예가 드물다<sup>5)</sup>. 이에 중친을 왕에 비할 바는 아니나 편복임을 고려해 왕의 염습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왕의 상례에는 습의와 소렴, 대령에는 면복은 물론 강사포, 첩리, 담호, 단령 등이 조선 조부터 사용되었다<sup>6)</sup>. 이 제도는 영조 20년 「국조오례의」에서도 변

<표 3> 중치막 치수표

항목	종류	중치막 I (302)	중치막 II (309)	중치막 III(312)	중치막 IV(323)
총길이		120.5	119	118	117.8
뒤폭		58	58	45	52.8
앞폭(좌/우)		23.5/28	23.4/28.5	18.5/21	24/25.5
뒤도련나비		64.3	63.5	59.3	63.5
앞도련나비(좌/우)		31.5/30.3	31.5/32.5	30/29	31/31.5
고대		19	20.5	18.5	19.5
화장		111.5	112	107	113
소매나비		56	51.6	49	55
진동		34.6	34.2	26.5	30.4
수구		23	23.5	21.5	21.5
결 고름길이/나비		51.5/4	66.5/4.3/5	49, 46.5/4.5	61/4
안 고름길이/나비		52.5/4	53/3.3	47.5/4.5	61/4
결선패나비 上/下		21.5/41.5	19.5/42.8	17/40	20.5/39
결선패길이 안/밖		103.7/88	98.5/90.5	98/91	95.7/84.3
안선패나비 上/下		7.6/24.4	6/23.5	3.5/21	7/13.3
안선패길이 안/밖		91/74.6	86.1/77	91.6/84	92/77.5
결깃길이		42	39.8	37	41
안깃길이		46	42.5	30	40
총깃길이		102	99.2	84.5	97
깃나비		13.5	12.3	12.5	12.1
동정나비		5.6	5.1	5.5	5.5
트임길이		66.5	64.5	72.5	66
옷감나비		48	38	35	38

함이 없고 조선시대 말 순종조 소렴 의대 등을 비롯, 조선시대 말까지도 착용되었다.

그러나 창옷이나 도포, 중치막 등은 조선초에는 없었던 의복으로 경종 승하시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경종 승하시의 기록은 소렴, 대렴 의대에 대한 것은 없고 관 안을 채우는 의복인 棠梓宮<sup>7</sup>衣禱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바지, 저고리, 배자, 곤룡포, 도포 등을 포함한 10종류 총 160벌의 의복 중 도포(32벌)와 중치막(71벌), 저고리(20벌)이 대부분으로 조선 중엽에 들어 중치막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모든 의복에 사용된 색이 14가지인데 중치막의 색은 玉色, 草綠, 多紅, 松花色, 朱黃, 石染色, 藍色, 寶羅色 등 9色이고 직물의 종류 또한 많이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경종 실재궁 의대 중치막(71 벌)의 내용

色	織物名
玉色	大段(4), 開其紬, 綾, 花方紬(6), 方紗紬(6), 花紗紬, 龍文緞, 無文緞, 有文緞
草綠	開其紬(2), 大緞(8), 雲文大緞, 方紗紬(3)
紫的	花方紬, 綾
多紅	宋綿緞, 開其紬
松花色	葡萄文大緞, 綾, 賞賜緞, 大段(2), 花紗紬, *一
朱黃	*一, 大段
石染色	稀文廣織
監	綾, 開其紬(2), 方紗紬(10), 花方紗, 雲文大緞, 宮綃
寶羅	大段, 龍文緞, 綃(원문에는 寶綃中赤莫으로 기록)

한편 본 유물보다는 후대이기는 하나 英祖大王 승하시의 기록<sup>8)</sup>을 살펴보면, 소렴 의대, 대렴 의대, 상재궁 의대의 3가지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소렴 의복 62벌 가운데 中赤莫은 모두 17벌이며, 대렴에는 곤룡포, 답호, 조복, 장의만이 보인다. 하지만 실재궁 의대에는 복식 종류 16종 총 124벌 중에서 중치막은 모두 35벌이며, 草綠廣織, 警衣, 有紋大緞 등의 2벌의 창

<표 5> 영조 소렴시 의대 중 중치막(17 벌)

色	織物名
監	貢緞(2)
藍	貢緞(2)
紫的	鄉織
玉色	藍扇緞, 有紋緞, 廣織, 鄉織
甫羅	有紋緞, 有紋綾
草綠	有紋鄉織, 廣織(3)
豆綠	有紋緞(2)

와 1벌의 첩리도 들어 있다. 직물 종류도 다양하고 색은 주로 玉色, 藍色, 草綠, 紫的, 柳綠의 순으로 많이 쓰였다.

이상에서 첩리는 조선 초부터 습의로 사용되어 왔고, 중치막과 창외는 조선 중엽에 들어 관의 내부를 채우는 보공으로 많이 양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공의 양이 중치막이 얼마나 많이 애용되었는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다른 출토 복식에서는 물론, 이후 풍속화 등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표 6> 영조 실재궁 의대 중 중치막, 창외, 첩리

服飾名	色	織物名
中赤莫 (35 벌)	草綠	貢緞(2), 廣織(5), 有紋緞
	柳綠	綾
	紫的	有紋鄉織, 鄉織, 貢緞
	玉色	貢緞(2), 廣織(3), 無紋綾, 鄉織, 綾(2), 四紹(2), 禾花紬
警衣(2 벌)	草綠	廣織, 有紋大緞
帖裏(1 벌)	多紅	大緞

한편 산의(散衣)란 보공으로 채워지는 옷을 말하며, 바지 저고리류가 사용되는데 비해, 도의(倒衣)란 「四禮儀節」(1642)에 나타난 용어로 소렴급 위 아래에 까는 의복으로 창외나 중치막을 쓰는 것으로 보아<sup>9)</sup> 이미 당시부터 중치막은 도의로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 IV. 조선중엽의 첩리와 창의류

##### 1. 첩 리

帖裏는 조선초부터 응복이나 별감 등 하급직의 관복으로도 입혔지만, 왕과 백관의 응복이나 관복에 입는 밀받침 옷으로 착용하였다. 게다가 세종 26년<sup>10)</sup> 明에서 면복과 함께 賜與한 常服一襲에 帖裏가 포함되고, 世祖 2년<sup>11)</sup> 6월의 기록에서도 왕이 사여한 옷에 直領, 團領의 밀받침 옷으로서, 같은 해 6월 韓繼美와 尹鳳에게 내린 의복 중에서도 帖裏가 보이듯이 빈번히 조정의 사여물로 등장하고, 사대부들이 편복으로서 겉에 입는 등 조선 초에 이미 그 착용이 확대되었다.

선조대부터 인조대에는 건란으로 인해 응복의 기능을 지닌 첩리의 착용이 장려되었고, 소매의 크기가 커져 여러 차례 착수명(窄袖令)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英祖, 正祖 때까지도 官服의 밀받침 옷으로서 帖裏 대신 驚衣를 착용하고 첩리의 소매는 너무 넓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기록이 있다<sup>12)</sup>.

이는 조선조 전기에 이어 임진 병자란이후 평화시로 접어들어감에 따라서 帖裏가 또 다시 밀받침 옷보다는 겉옷으로 용도가 변화되어 착용되고 이에 따라 소매나 치마 등 그 외형이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복 밑에는 첩리보다는 창의를 많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복식과는 달리 宮中에서는 전통을 고수하여 첩리가 계속 裏衣로 착용되었음을 歷代 「嘉禮都覽儀軌」, 「國婚定例」 및 「尙方定例」의 의대에 첩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첩리의 색에 대해 문헌을 살펴 보면, 世宗 26年<sup>13)</sup> 謝恩使 柳守剛이 가져온 常服으로서 袞龍袍, 搭護와 함께 첩리가 1組를 이루어 3조가 사여되었는데, 그 중 첩리의 경우 黑線暗花, 鷲哥綠花, 柳靑素 첩리 등 색상의 명칭이 보인다. 세조 2년<sup>14)</sup> 중국 사신에게 내린 하사물 물에 白細紵布 첩리 1벌, 韓確의 家童을 통해 내린 의복 중 柳靑紬, 黑麻布, 白苧布로 된 첩리, 그리고 燕山君代<sup>15)</sup> 士人服色에 나타난 草綠, 藍, 柳靑 緞子 첩리 등이 있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고, 붉은 색 보다는 푸른 계열의 색이 애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續大典」에 堂上官 藍色, 堂下官 靑玄色, 郊外動 時 紅色 帖裏라는 規定이 있어 본 유물 중 첩리(유물번호 173)가 청현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한다. 조선말기의 유물로 볼 때는 靑色과 紅色의 二色<sup>16)</sup>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첩리의 형태 중 活動과 관계가 있는 소매의 변화<sup>17)</sup>에 대해 살펴보면, 16세기까지만 해도 좁은 직선이었던 배래가<sup>18)</sup> 宣祖代(16세기 초)에는 배래만 曲線으로 변하였고 다시 肅宗代(18세기 초)에는 넓은 두리소매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광해군대 金緯의 紫色 명주 帖裏와 숙종대 金德遠의 七寶雲紋緞 素色 帖裏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700年代 1800年代에서 소매나비와 진동의 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이 때에도 모든 신분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신분이 높은 경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넓은 두리소매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또한 첩리의 上衣와 下裳의 길이를 비율로 계산해 보면, 치마 부분의 길이에 비해 上衣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표 7)<sup>20)</sup>.

<표 7> 첩리의 상의 / 하상 비율

묘주명	연대	평균비
정응두	1508~1572	0.94
김덕령	1596	0.7
김위	1618	0.58
박신룡	1575~1627	0.54
김덕원	1634~1704	0.53
홍감보	1699~1731	0.49
홍우협	1657~1736	0.51
홍희준	1761~1841	0.46

본 유물의 깃은 갈깃 형태이며, 이중깃은 아니다. 이중깃은 15~16세기로 연대가 추정되는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품의 여주 출토 첩리를 비롯해 이전의 첩리에서 종종 나타난다. 帖裏의 고름 길이와 나비는 1700年代 이후부터 커져감을 볼 수 있고 고름의 수도 여주 출토 품처럼 2개가 위 아래로 달린 것도 있으나 이황 보출 토품과 같이 절설 아래에 작은 매듭 단추를 달아 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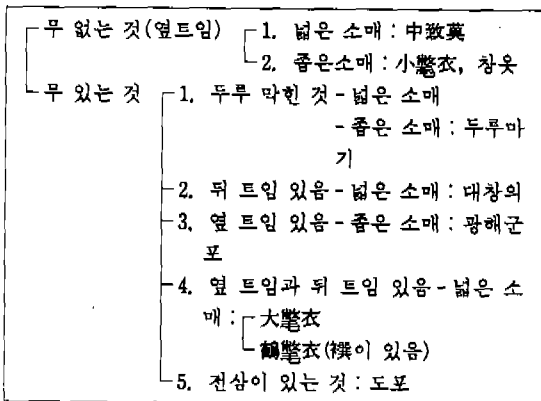
을 대신했으며, 후대로 내려와 첩리의 상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고름 하나로 충분하게 됨을 볼 수 있다. 특히 여밈의 깊이도 차츰 알아지고 있어 여자 저고리의 흐름과 매우 비슷해짐을 본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 용복으로서의 기능성보다는 위엄 있고 우아한 편복포를 추구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는 당시 첩리 변화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전쟁의 종식으로 권위주의적 사회풍조, 용복의 기능 감소로 해석한 이은주의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한다.<sup>21)</sup>

2. 창의류

창의란 트임이 있는 의복으로 창옷[小髻衣], 창의, 중치막, 대창의, 학창의 등이 이에 속한다. 직령 깃에 상하연속의로서, 소매의 형태나 무의 존재 여부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소매가 넓고 무가 있으며 등술의 허리 이하에 트임이 있을 때에는 대창의라고 하고 무가 없이 양옆이 트이면 중치막, 소매가 좁고 무가 있으며 뒤중심에 트임이 있으면 창의(髻衣), 무가 없고 양옆이 트이면 창옷 또는 소창의라 한다. 중치막을 제외하고 창의라는 별도의 명칭이 문헌에 정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영조 때가 처음이다.

<표 8> 유물에 의한 便服袍의 분류



1) 대창의

大髻衣는 큰 창옷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무가 있고 넓은 소매에 뒤 트임이 있으며 옆이 조금 트인 것도 있고 막힌 것도 있다.<sup>22)</sup> 보통 사대부의 외출복으로서 細條帶와 함께 道袍 대신 사용되었다. 색상도 素色이

대부분이나 연노랑색, 청록색, 옥색, 다홍색도 사용되었다.

崔南善은 「朝鮮常識」 風俗篇에서 整齊된 衣冠으로 威儀를 갖추려던 朝鮮時代의 價値觀에 의해 밀반침 옷으로서는 물론이요 室內에서 쉴 때조차 갖춰 입던 옷이 바로 창의라고 하였다. 그리고, 창의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中致莫을 큰 창옷이라 부르기도 한다면서 中致莫은 창옷과 같으면서 廣袖요, 뒤로 찢어서 四幅으로 생긴 것으로서 남자의 常時 정식의 옷옷이 된다고 하였다.<sup>23)</sup> 그러나 대창의와 중치막은 무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sup>24)</sup>, 비슷한 시기의 대창의로는 김덕원 묘 출토(물년 1704) 소색 대창의<sup>25)</sup>가 있다.

2) 中致莫

중치막의 한자는 보통 '中致莫'이라고 쓰지만, 영·정조의 棠梓宮 衣樹 및 소림, 대림시 의대에서는 '中赤莫'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때, '赤' 자는 '치'라고 발음한다. 창의류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肅宗 승하시의 실재 중 의대에 복식에 관한 내용이다.

중치막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조선 중엽에 나타나며, 밀반침 옷으로 첩리의 착용이 줄면서 창의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전란 이후 편복포도 첩리 대신 다른 포로 차차 대체되면서 창의류 중 겹에 입는 것은 넓은 소매로, 판복의 밀반침으로 입거나 下庶人이 입는 옷은 좁은 소매로 구별되면서 부터라고 생각된다. 물론 大髻衣와 中致莫에 비해서 小髻衣는 총길이와 화장도 짧다. 1600년대 후반경부터 소매 나비가 넓어짐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소매 나비에 의한 分類는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김위(1618, 중요민속자료 118)나 전학장군(1592년 경, 중요민속 자료 117) 등 17세기 이전의 출토복<sup>26)</sup>에서는 진동보다 약간 넓은 중치막과 창옷의 중간정도 되는 소매이나, 이에 반해 홍우협(1655-1692년으로 추정)의 유물<sup>27)</sup>과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홍진종(1649~1702) 묘 출토품(중요민속자료 113호)<sup>28)</sup> 그리고 진천 출토 경주 이씨(泰坤) 유물(1672~1763)<sup>29)</sup> 등에서는 소창의와 중치막이 소매의 나비로 뚜렷이 구별되어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직령교임포에 있어서 소매나비, 고름길이, 고름나비, 앞섶나비上, 뒤품, 걸섶나비上 등이 時代에 따라 有意한 部位, 총길이, 진동, 걸섶길이, 앞섶길이 등은 有意하지 않는 部位로 分析된 이해영의 연구 결과<sup>30)</sup>와도 일치한다.

## V. 결론 및 요약

## 미주 및 참고문헌

이상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출토복식 중 위 커힐 부지 이황의 묘에서 출토된 남자 편복포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토복식 중 첩리는 전형적인 조선 중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소매가 넓어지고, 치마에 대한 상의의 비율이 줄어든 형태로 이러한 현상은 17세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중 깃은 사라지고 고름의 수도 하나로 고정되어 가는 과정으로 결실 아래에 매듭 단추를 단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황 묘의 첩리는 치마 부분의 옆선이 트인 형태인 것으로 다른 출토품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대창의와 중치막도 출토되었는데 그 중 중치막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당시에 중치막이 첩리를 대신하여 관복의 밑반침 옷이나 편복으로 애용되었던 것을 반영한다. 17세기 이전의 출토 유물에서는 창의류의 포가 소매의 넓고 좁음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중간 정도의 소매인 사실과 문헌으로 보아 중치막의 발생은 17세기 중엽 이후라고 추정된다.

첩리의 형태에 있어 소매나비이와 치마 길이가 길어진 것은 긴 전란 기간 동안 첩리 착용에 대한 지루함에 서 벗어나 기능보다는 미를 추구하는 심리적 변화가 원인 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관복의 밑반침 옷으로 첩리 대신 창의류를 착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편복으로 外衣化하여 등 창의류의 착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창의류의 소매의 확대가 17세기부터 나타난 현상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직물에 있어서는 중치막은 명주가 대부분이지만 첩리는 전란 이후 관복의 밑반침 옷보다는 편복으로 곁에 많이 입히게 됨에 따라 고급품인 칠보운문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칠보운문단은 다른 묘에서 출토된 첩리에서도 적지 않은 예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마치면서 이황의 출토품은 출토 당시 인식의 부족으로 유물 전체가 수습되지 못한 점과 일부는 소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발굴 즉시 보고서와 관련 연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30년이 지난 오늘에 더 큰 아쉬움으로 남았겠지만 당시 유희경 교수의 지도하의 4학년 학생들의 연구가 단편적이거나 큰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 1) 김순원, 임천혜, “家政科 所藏 古代 衣裳에 對한 小考”, 「가정」, 65~70, 1965.
- 2) 사망 당일에 행하는 행사이다. 염습복은 모두 吉服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인숙, “조선왕조 왕의 小斂, 大斂, 棠梓宮衣褂에 관한 研究”, 「복식」, 한국복식학회지, 제 5 권, 208, 1981. 11.
- 3) 습을 행한 후에 하는 절차로 사망한 다음 날에 행한다.
- 4) 소렴이 끝난 다음 날, 즉 死後 제 3 일에 행한다.
- 5) 첩리에 대해서는 「국조오례의」에 왕의 습의에 대한 기록과 「가례집람」에 그 기록이 있으나 창의류에 대해서는 「사례편람」 卷之3, 九에서 처음 중치막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우봉이씨대종회(편), 「도암 이재선생 원저 국역사례편람」, 292, 1992.
- 6) 「國朝五禮儀」, 卷之7, 凶禮.
- 7) 梓宮이란 왕의 棺을 말한다.
- 8) 「承政院 日記」, 77, 989.  
「朝鮮王朝實錄」(44), 英祖 五十二年 三月.
- 9) 송미경, 염습의에 관한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34, 1989.
- 10) 「世宗實錄」 卷 103, 26年 3月 丙子條.
- 11) 「世宗實錄」 卷 104, 2年 6月 辛酉條.
- 12) 「世宗實錄」 卷 40, 2年 10月 丙寅條.  
「正祖實錄」 卷 37, 17年 10月 辛未條.
- 13) 「世宗實錄」 卷 101, 26年 3月 丙子條.
- 14) 「世祖實錄」二年 七月 戊戌條.
- 15) 「燕山君日記」 卷 五十二, 十一年四月 乙丑條.
- 16) 金仁淑, “袍制와 裳”,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호협회, 196, 1982.
- 17) 유송욱,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5, 1986.
- 18) 김덕령 장군의 첩리(1567~1596)  
앞글, 258.
- 19) 앞글, 204.
- 20) 「한국복식」 제12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30, 1994.  
「한국복식」, 제13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64, 1995.
- 21) 이은주, “첩력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제13권 4호, 319~329, 1989. 11.
- 22) 윤미화, 「창의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23)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 서울: 동명사, 120.

1948.

- 24) 윤미화, 6~7, 1982.
- 25) 중치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무가 있고 뒤가 트인 대창의이다.  
유송옥, “출토복식·남복”, 「한국의 복식」,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호협회, 283, 1982.
- 26) 장인우,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 복식」, 서울: 학연문화사, 1995.
- 27) 「洪禹協墓 出土 17世紀 服飾 論考」, 충북대학교박물관, 1993.

- 28) 고려대학교박물관, 「복식류명품도록」, 240~241, 1990.
- 29) 중치막 2점 발굴되었다고 하나 유물 사진을 본 결과 누비 중치막과 창옷이 각 1점이었다. 「한국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52~55, 1988.
- 30) 이해영, 「한국 적령교임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95, 1989.